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김 경 원** · 강 경 화*** · 정 금 희****

I. 서 론

대학생은 성인기 초기의 발달단계로 친밀감 형성의 발달과업을 갖는다.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발전되므로 대학생의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성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에게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대학입시에만 집중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물론 대학생의 진정한 이성교제와 성행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ark, 2007).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잡지나 대중매체 등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성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 성을 유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성적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적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다양한 성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Han & Ham, 2000).

대학생이 성지식이 부족하여 성병과 임신에 대한 예방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남학생은 순간적 충동과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

다(Choi & Ha, 2004; Han & Ham, 2000). 이런 상황이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과 인공유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생에게 성에 대한 의사결정능력과 책임감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사회의 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성행동과 성경험, 피임과 성병 지식에 관한 연구들(Choi & Ha, 2004; Hur, et al, 2007; Lee, 2010; Shin, Chun, Cho, & Cho, 2005)이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의 효과는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성 개방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여 대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 성교육은 과거 일방적 교육방식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적 자율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은 자신이 외적 내적 조건에 자기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말한다. 성적 자율성은 성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힘으로(Wolf, 1990),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적인 조건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성

* 본 논문은 2009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HRF-2009-42).

**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ghjeong@hallym.ac.kr)

투고일: 2011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2일

적 자율성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실현시키는 의지이며 행위이다(Chang, 2002).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신 능력의 확신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이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과 능동적 인지와 행위는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능동적인 인지적 행동적 대처능력이 커진다(Han et al, 2008). 행동의 시작과 방향, 노력, 지속력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일의 성취나 신체활동 참여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책임감 있는 성적자율성을 갖게 하여 건설적인 이성교제를 통해 바람직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지도록 한다(Chang, 200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 대상의 효과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대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와 D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남녀대학생이다. 자료수집에 대해 교양학부 지도교수의 협조를 얻은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을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총 36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미회수된 것과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7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 보고식 설문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고 난 후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척도로 Lee(2000)가 수정 보완한 총 17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으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erer 등(198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1, Lee(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3, 이었다.

2) 성적자율성

성적자율성은 Chang(2002)이 개발한 총 15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조절과 대응으로 구분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0.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0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정도

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 Scheffe 사후검증으로,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이 53.2%, 여학생은 46.8%였으며, 1,2학년이 73.4%, 3,4학년이 26.6%를 차지하였다. 전공은 인문대가 27.1%, 사회대가 28.6%, 자연대와 공대가 32.5% 등이었고, 주거형태는 38.1%가 자택이었고 남학생중 62.6%는 군 복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 활동의 허용수준은 대화나 손잡는 정도가 14.6%, 애무와 키스가 50.1%, 성교까지가 35.3%로 나타났고, 실제 대상자 중 31.4%는 성교경험이 있다고 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3.49점이었다. 자기효

능감의 문항별 평균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2.98점,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가 3.16점 이었다. 문항별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가 4.02점,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가 3.98점, '나는 일을 끝내기도 전에 포기한다'가 3.68점 등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성적자율성 평균은 4.08점이었다. 문항별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이성 교제때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가 3.24점, '나는 혼전 임신 시 유산과 출산 여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가 3.38점, '나는 성관계를 원할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가 3.81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는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쓸 것이다'가 4.66점,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다'가 4.49점, '나는 성교할 때 피임을 할 것이다'가 4.43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차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0 (53.2)
	Female	167 (46.8)
Grade	1 st , 2 nd year	262 (73.4)
	3 rd , 4 th year	95 (26.6)
Major or department	Human Science	97 (27.1)
	Social Science	102 (28.6)
	Science & engineering	116 (32.5)
	Others	42 (11.8)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136 (38.1)
	Lodgings, dormitory	221 (61.9)
Military services [†]	Yes	119 (62.6)
	No	71 (37.4)
Level of accept sexual behavior	Talking/ clasps hands	52 (14.6)
	Petting/ kiss	179 (50.1)
	Sexual intercourse	126 (35.3)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112 (31.4)
	No	245 (68.6)

[†] Male case

Table 2. Self-efficacy of subjects

N=357

Items	M (SD)
1. When I make plans, I am certain I can make them work.	3.66 (0.75)
2. One of my problem is that I can not get down to work when I should.*	2.98 (0.97)
3. If I can' do a job the first time I keep trying until I can.	3.19 (0.92)
4. When I set important goals for myself, I rarely achieve them.	3.43 (0.78)
5. I give up on things before completing them.*	3.68 (0.81)
6. I avoid facing difficulties.*	3.52 (0.98)
7. If something looks too complicated, I will not even bother to try it*.	3.16 (0.91)
8. When I have something unpleasant to do, I stick to it until I finish it.	3.36 (0.86)
9. When I decide to do something new, I go right to work on it.	3.54 (0.90)
10. When trying to learn something new, I soon give up if I am not initially successful.*	3.42 (0.83)
11. When unexpected problems occur, I don't handle them well.*	3.42 (0.83)
12. I avoid trying to learn new things when they look too difficult for me.*	3.54 (0.95)
13. Failure just makes me try harder.	3.17 (0.91)
14. I feel insecure about my ability to do things.*	3.54 (0.96)
15. I am a self-reliant person.	3.98 (0.97)
16. I give up easily.*	3.67 (0.93)
17. I do not seem capable of dealing with most problems that come up in life.*	4.02 (0.83)
Total	3.49 (0.53)

* reversed item (conversed score)

Table 3. Sexual autonomy of subjects

N=357

Items	M (SD)
1. I can deal with our relation in my own way when I make boyfriend.	3.24 (0.90)
2. I can speak out for sex related matter equally with my sex partner.	4.07 (0.79)
3. I can speak out clearly about having intercourse.	3.81 (0.99)
4. I can reject having unwanted intercourse.	4.25 (0.89)
5. I can decide by myself whether I have intercourse or not.	3.96 (0.92)
6. I can use contraceptives when I have intercourse.	4.43 (0.84)
7. I can use prevention methods I have intercourse.	4.31 (0.87)
8. I can control my sexual desire.	4.11 (0.82)
9. I do care the negative outcome of my sexual partner when I have intercourse.	4.19 (0.78)
10. I can decide to have an abortion or giving birth following pregnancy out of wedlock by myself.	3.38 (1.29)
11. I can decide to have an abortion or giving birth following pregnancy out of wedlock after discussing my partner.	4.18 (0.96)
12. I can be responsible if I have an STD infection.	3.98 (1.00)
13. I can prevent repeated STD infections.	4.66 (0.64)
14. I can express my unpleasant feeling when I confront sexual violence.	4.15 (0.88)
15. I can cope with sexual violence.	4.49 (0.78)
Total	4.08 (0.46)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성별($t= 2.193, p= .029$), 전공별($t= 3.110, p= .026$), 성행동의 허용수준($t= 3.846, p= .022$)과 성교경험유무($t= -2.759, p= .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교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 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 자연대와 공대 대상자가 인문대와 사회대 대상자

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고, 성행동의 허용범위 수준이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Table 4).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은 성별($t=-5.840, p=.000$), 학년별($t= 2.124, p= .034$), 전공별($t=3.592, p= .014$), 성행동의 허용수준($t=6.974, p= .001$)과 성교경험유무($t= 3.164, p= .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Table 4. Difference of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Sexual autonomy		
		M (SD)	t or F	p	M (SD)	t or F	p
Gender	Male	3.55 (0.57)	2.193	.029	3.85 (0.50)	-5.840	.000
	Female	3.43 (0.48)			4.23 (0.35)		
Grade	1 st , 2 nd year	3.48 (0.51)	-0.884	.337	4.11 (0.42)	2.124	.034
	3 rd , 4 th year	3.53 (0.59)			3.99 (0.53)		
Major & department†	Human science	3.44 (0.49) ^a	-3.110	.026	4.21 (0.37) ^a	3.592	.014
	Social science	3.42 (0.60) ^a			4.08 (0.54) ^b		
	Science & engineering	3.53 (0.50) ^b			4.01 (0.45) ^b		
	Others	3.69 (0.51) ^c			4.04 (0.37) ^b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3.46 (0.53)	-0.963	.336	4.12 (0.41)	1.279	.202
	Lodgings & dormitory	3.52 (0.53)			4.06 (0.48)		
Military service	Yes	3.59 (0.61)	0.536	.592	3.91 (0.54)	-1.644	.102
	No	3.54 (0.50)			4.04 (0.42)		
Level of accept sexual behavior†	Talking/ clasp hands	3.33 (0.52) ^a	-3.846	.022	4.19 (0.49) ^a	6.974	.001
	Petting/kiss	3.47 (0.46) ^b			4.16 (0.36) ^a		
	Sexual intercourse	3.58 (0.61) ^c			3.97 (0.54) ^b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3.60 (0.61)	-2.759	.006	3.97 (0.55)	3.164	.002
	No	3.43 (0.48)			4.13 (0.40)		

† Scheffe test

남학생보다 1, 2학년이 3, 4학년 보다 성적자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성교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대상자보다 성적자율성 점수가 높았다.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 인문대학 대상자가 사회대학, 자연대와 공대 대상자 보다 성행동의 허용범위 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상자보다 성적자율성 점수가 높았다(Table 4).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78, p = .000$) (Table 5). 즉, 대상자의 자기효

능감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들에게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9점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성간의 성 행동 허용수준에서는 상관관계까지 허용하는 대상자가 허용수준이 낮은 대상자 보다,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의 신념으로(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행동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며 건강문제에도 잘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 갖고 있으므로(Jang, 2005; Song, Jang, Kim,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autonomy of subjects N=357

	Sexual autonomy
	r (p)
Self-efficacy	.278 (.000)

2009),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earson(2006)은 자기효능감은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학생의 임신위험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라고 하였으며, Longmore, Manning, Giordano와 Rudolph(2003)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피임기구의 사용을 허락받은 학생이 허락받지 못한 학생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교육은 성관계의 단순한 억제보다는 책임 있고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는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성관계로 임신이 될 경우 유산이나 출산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로서 스스로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성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도 아들 보다 딸에게 보수적인 성 태도를 보인다(Popper & Brown, 1986). 실제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혼전성 경험률이 낮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Choi & Ha, 2004). 그러나 Paul과 Hayes(2002)는 대학생기의 성관계는 즉흥적 접촉으로 주관적인 성태도가 관련되지 않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경험률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저학년의 성적자율성도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훈육에 의해 학습된 성적자율성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던 고등학생시절의 생활 형태와 생각을 이어가고 부모의 성행동과 성태도 까지 따라가게 된다. 이공간에 손을 잡거나 대화까지만 허용하는 학생의 성적자율성이 키스나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학생들보다 높은 것도 그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이 성적요구, 선택과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앞에서 논의했던 보수적인 부모와 문화적인 차이 등도 그들의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Schalet, Hunt, & Joe-Laidler, 2003). 그리고 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성적자율성이 타 전공학생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인간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해주는 학문인(Kang, 2002) 인문학을 배우면서 인문학의 본뜻이 그들의 성 가치관 형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의 평균은 4.08점으로, Choi와 Ha(2004)의 대학생 대상 연구의 3.89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성적 자율성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대상자들이 성행동과 성관계를 단순한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기보다는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Tripp과 Viner(2005)도 임신한 십대의 90%가 임신 전 피임을 전문 간호사와 상담하며 본 연구에서도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는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쓸 것이다',와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교할 때 피임을 할 것이다'의 순으로 성적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대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위험한 성행동과 의도하지 않은 임신, 그리고 성병으로 생각된다. Shin 등(2005)의 연구에서도 4주간의 건강신념 모델을 근거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향상되었으며 Kim과 Kang(2003)도 성적자율성이 높은 경우 피임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경험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억제만을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그들의 성경험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을 이끌어주는 성교육을 하게 된다면 성적자율성도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자기효능감 항목에서 가장 낮았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높임으로 성적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자의 성별, 성행동 허용수준, 성교경험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의 차이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추후에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는 물론,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이 성교 경험연령, 원치 않는 성교나 임신경험, 성병, 유산 등 성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는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그리고 청년기의 대학생이 이성애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며 다양한 성행동은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성의 개방화로 성행동이 빨라졌으며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사회의 시각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행동을 성인의 성행동으로 인정하면서 위험한 결과를 예방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행동하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책임한 결과로 인한 임신은 유산을 가져오고 이는우리 사회의 저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성행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실질적 정보나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고, 성적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서 대학 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이 필요하다(Oh, Kang, & Kim, 2010; Lim & Cho, 2003).

또한 대학생들은 성교육이나 상담을 성전문가들보다는 일반 건강서비스 기관에서 해주기 원하며 그들의 성행동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와 신뢰감 그리고 건강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 등에 따라서 성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고 한다(Tripp & Viner, 2005). 따라서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성행동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그들이 택한 건강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성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며 성적자율성 또한 향상되어 건강한 성적 발달을 갖게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교육은 자기효능감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던 문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능력과, 자신감, 신속한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통해서 성적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행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개선된 성교육을 통하여 성적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과 부모기를 앞둔 남녀 대학생이 안전한 성행동에 동참하면서 바람직한 성인 남녀의 성 역할을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성적자율성이 향상시키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1), 106-115.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Han, K. S., & Ham, M. Y. (2000).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AIDS-education needs of male workers in Seoul and Kyungki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1-17.
- Han, K. S., Park, Y. J., Kim, K. M., Oh Y. J., Jin, J. H., & Kang, H. C. (2008). Communication style, self-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28-34.
- Hur, M. H., Ahn, U. Y., Kwan, E. A., Kim, K. M., Park, J. Y., & Lee, J. R. (2007). A study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67-275.
- Jang, H. S. (2005).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Changjisa.

- Kang, Y. A. (2002). *Knowledge with human's face, for the philosophy in humanities*. Seoul: Sonamu.
- Kim, M. J., & Kang, H. S. (2003). A comparative study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contraceptive user on partner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and sexual auton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84-791.
- Lee, C. C. (2000). *Analysis of factors rel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Lee, J. K. (2010). Effects of AIDS education on knowledge, prejudice, susceptibility, severity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258-269.
- Lim, H. J., & Cho, Y. H. (2003).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2), 412-422.
- Longmore, M. A., Manning, W. D., Giordano, P. C., & Rudolph, J. L. (2003). Contraceptive self-efficacy: does it influence adolescents' contraceptive 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1), 45-60.
- Oh, S. H., Kang, H. S., & Kim, Y. H. (2010).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249-257.
- Park, A. C. (2007). A review of Erikson's developmental frame-works on human develop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6(2), 143-163.
- Paul, E. L., & Hayes, K. A. (2002). The casualties of 'casual' sex: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phenomenology of college students' hooku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 639-661.
- Pearson, J. (2006). Personal control, self-efficacy in sexual negotiation, and contraceptive risk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Sex Roles*, 54, 615-625.
- Popper, S., & Brown, R. A. (1986). Moral reasoning parental sex attitudes, sex guilt in female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4), 331-340.
- Schalet, A., Hunt, G., & Joe-Laidler, K. (2003). Respectability and autonomy: the articulation and meaning of sexuality among the girls in the gang.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2(1), 108-143.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in, Y., Chun, Y., Cho, S., & Cho, Y. (2005). The effects of a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7), 1304-1313.
- Song, S. H., Jang, Y. K., & Kim, J.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behavior, social comparison attitud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27-39.
- Tripp, J., & Viner, R. (2005). ABC of adolescence sexual health, contraception, and teenage pregnancy. *British Medical Journal*, 330, 590-593.
- Wolf, S. (1990).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Kyung Won(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Kang, Kyeong Hwa(Associated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Jeong, Geum Hee(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rrelation between sexual autonomy and self-efficacy and provide preliminary information for use in development of a sex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357 university students. Subjec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 following: demographics, sexual autonomy, and self-efficacy. **Results:** A total of 112 subjects (31.3%) had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and 126 subjects (35.3%) regarded it as an acceptable level of sexual behavior. The mean of sexual autonomy was 3.49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gender, grade, department, and acceptable level of sexual behavior. The mean of self-efficacy was 4.08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gender, department, and acceptable level of sexual behavior. In addition,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xual autonomy and self-efficacy. **Conclusion:** Development of a sex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reinforcement of sexual autonomy and self-efficacy, is needed.

Key words : Self efficacy, Sexual behavior, Students